

많은 죄악과 과실을 사하신 형벌만을 지는 결단
 코 사하지 아니하고 이비의 죄악을 자식에겐
 아 삼사 대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셨나이다. 구
 하옵나니 주의 인자의 광대하심을 따라 이 백성
 의 죄악을 사하시되 애굽에서부터 지금까지 이
 백성을 사하신 것같이 사하옵소서”(민 14:
 17~19). 모세는 하나님의 약속 삼사 대의 벌
 과 천 대의 은혜에 의지해 용서를 빌었다. 하나
 님께서는 “내가 네 말대로 사하노라”(민
 14:20)고 선언하신다. 죄인을 벌하시려는 하나
 님의 공의보다 죄인을 용서하시고 은혜를
 베푸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훨씬 더 강
 하게 부각되어 있다. 모세는 하나님
 의 천 대의 은혜에 호소하며 삼사
 대의 처벌을 용서해 달라고 빌었던
 것이다.

신약시대로 오면 가계나 족보는 별 의
 미를 가지지 못한다. 긍정적으로도 그렇고 부정
 적으로도 그렇다. 가족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구
 원을 나르거나 가로막는 기능을 가지고 있지 않
 다. 가문도 민족과 혈통도 더 이상 하나님의 사
 랑과 은총을 막거나 전하는 수단이 되지 않는
 다. 그래서 신화와 족보에 몰두하지 말라는 명
 령이 나온다. 왜냐하면 “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
 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름보다 도리어 변론을 내
 는 것”이기 때문이다(딤후 1:4). 비슷한 말씀이
 디모서 3장 9절에도 기록되어 있다. “어리석은
 변론과 족보 이야기와 분쟁과 율법에 대한 다툼
 을 피하라. 이것은 무익한 것이요 헛된 것이니
 라.”
 성경을 따른다면 우리는 이렇게 말해야 한다.
 조상들이 어떤 죄를 지었고 어떤 삶을 살았는지
 걱정하지 말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흘려

들어가심으로 하나님의 형벌을 다 받으시고 그
 대신 우리를 용서하시며 우리를 받으신다는 이
 복음을 지금 당신이 받아들이라.

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 더 이상 두려울 것도
 무서울 것도 없다. “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
 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 주신 이가
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
 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”(롬 8:32)라고 성경은
 말하기 때문이다.

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성경으로 포장

우리는 가문, 혈통이 하나님의
 사랑과 은총을 주관하는 수단이 되지 않는
 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.

돼 있으나 그 내용물은 복음적 메시지와 무관한
 가계저주론과 같은 사상에 두려움으로 반응하
 는 것이 아니라 바울 사도처럼 우리는 사나 죽
 으나 다 주님의 것이라는 하나님의 절대주권에
 대해 고백하는 것이다. 그리고 성도는 “속이는
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
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고 징계를 받
 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
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
 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 것도 없는 자 같
 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”(고린도전서 6장 8~10
 절)임을 잊지 않으며 창조주 하나님의 능력으
 로부터 오는 성령의 기쁨부음을 힘입어 세상의
 소금과 빛으로 살아가는 것이다. <